

Quetiapine에 의한 약진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이지영, 고지환, 조선영, 황지안, 김태희

서론: 약물 투여와 관련된 피부증상은 입원환자의 약 2-3%에서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이다. 하지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된 약물 알레르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quetiapine은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중 하나로 불안과 섬망의 치료를 위해 최근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섬망의 치료를 위해 quetiapine을 투여 후 전신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고혈압, 당뇨, 심부전으로 투약중이던 71세 여자환자로 수면제 과다복용 후 의식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횡문근융해증, 급성 신부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치료하던 중 섬망이 있어 quetiapine 6.25 mg을 복용하였고 2일 후 등에서 시작하여 전신으로 번지는 홍반성 피부 발진이 발생하였다. 피부발진은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점막 침범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백혈구수 및 호산구 백분율은 정상범위였고 Total IgE 108 kU/L로 증가해있었으며 MAST inhalnet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quetiapine 복용중 수면 과다 증상이 있어 약물을 중단하였고 이후 피부병변은 호전되었다. 3일 후 섬망 증상으로 다시 quetiapine 6.25 mg을 투여하였고 투여 4일후 전신에 이전과 같은 양상의 홍반성 피부발진이 나타나 약물을 중단하였고 이후 재발하지 않았다. **고찰:**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한 피부 반응을 약진이라고 한다. 스티븐슨증후군이나 DRESS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인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지만 여러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약물을 찾기는 어렵다. 약진이 의심되면 약물투여후 피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감각될 시간이 있었는지,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되는지, 다시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같은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다. 본 증례에서는 피부발진이 호전된 후 다시 발생하기까지 quetiapine을 제외하고 새롭게 시작한 약물이 없었고,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도 변화없이 꾸준히 복용하던 상태였으며, 재투약후 같은 양상의 피부발진이 재발한 점, 약물 중단 후 피부발진이 소실된 점에서 quetiapine에 의한 약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quetiapine은 입원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섬망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결론:** quetiapine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발생한 약진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다시 같은 약제를 복용하였을 때 재발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천식환자에서 발견된 장관 포상 기종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내과학교실

*최준영, 반우호, 반태현, 조익현, 이경진, 이숙영

배경: 장관 포상 기종은 장관의 점막하 혹은 장막하 내에 가스로 채워진 낭종이 형성된 상태를 말하며 여러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천식과 관련된 장관 포상 기종은 극히 드물며 국내에는 첫 보고로 외국에서 보고된 증례도 총 2예밖에 없다. 저자들은 천식의 급성 악화로 내원하여 우연히 장관 포상 기종을 발견하여 치료한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74세 여자, 내원 2주 전부터 지속된 기침, 호흡곤란으로 본원 외래 경우 입원하였다. 내원시 흉부 진찰상 전폐야에서 천명음을 동반한 거친 호흡음이 청진되었으며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우중엽 기관지벽의 비후를 동반한 기관지 협착이 관찰되었다. 폐기능 검사상 정도의 폐쇄성 환기 장애를 보였다. 환자는 천식의 급성 악화에 준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및 베타-2 길항제와 항콜린제 네블라이저를 투여하였다. 환자는 18일 동안 약물치료 유지하던 중 증상 호전되었다. 퇴원 전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상에서 기복이 발견되었고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원위부 상행결장 및 근위부 횡행결장의 장관 포상 기종이 보이며 간굴곡부에서 천공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특이 증상 보이지 않았고 신체 검진상에서도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다. 1주일 후 외래에서 시행한 복부 엑스레이상 장관 포상 기종은 여전히 관찰되고 있으나 증상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찰:** 장관 포상 기종의 발생 기전은 장관내 압력에 의한 장관 벽의 기계적 외상, 장관 내 세균에 의해 가스 발생, 폐포 파열 등의 가설이 있다. 무증상의 장관 포상 기종 환자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위장관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성분식이, 항생제 혹은 고농도 산소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장폐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